

인두위문합술과 유리공장이식술에 관한 임상적 고찰

원자력병원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심윤상 · 오경균 · 이용식
추무진 · 심영목* · 조재일*

원자력병원 이비인후과에서는 흉부외과의 도움을 받아 1987년 10월부터 1990년 10월까지 인두위문합술을 시행한 6례와 1990년 12월부터 1991년 9월까지 유리 공장 이식술을 시행한 9례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1) 원발부위별로는 인두위문합술의 경우 하인두암이 5례, 재발된 후두암이 1례였으며, 유리공장이식술의 경우는 하인두암이 7례, 재발된 후두암과 갑상선암이 각각 1례씩이었다.
- 2) Stage별로는 인두위문합술에서 제3기가 1례, 제4기가 5례였고, 유리공장이식술의 경우는 제3기가 1례, 제4기가 8례였고, 15례 모두 남자였다.
- 3) 수술사망율은 인두위문합술이 6례중 1례(16.7%), 유리 공장 이식술이 9례중 1례(11.1%)였다.
- 4) 문합술의 성공율은 인두위문합술이 83.3%, 유리공장 이식술은 100%였다.
- 5) 수술합병증은 인두위문합술에서 폐에 오는 합병증이 많았으며, 수술후 문합부 협착은 인두위문합술에서 1례, 유리 공장 이식술에서 2례있었다.
- 6) 수술후 경구 섭취 시기는 인두위문합술에서 평균 13.6일, 유리 공장 이식술에서는 평균 9.0일이었다.
- 7) 수술후 재원일은 인두위문합술의 경우 평균 28일이었고, 유리공장 이식술의 경우는 평균 23.4일이었다.
- 8) 수술후 2개월째 시행한 기능 평가에서 인두위문합술의 경우 연하정도와 체중증가에서는 약간 우세하였다.

후두전적출술후 Amatsu식 기관식도누공에 의한 발성과 식도발성과의 비교

부산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백무진 · 오일준 · 고의경
왕수건 · 전경명

1873년 Billroth가 처음 후두전적출술을 시행한 이래 현재까지 후두암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방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로 인한 후두기능의 상실은 환자에서 심한 심리적, 사회적 장애를 초래하게 됨으로 후두전적출술후의 음성재활요법은 오래전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현재까지 여러 종류의 음성재활방법들이 고안되었는데 이중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발성이 가능한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식도 발성과 폐공기를 이용하는 기관식도누공을 이용한 발성이 있다.

저자는 Amatsu식 기관식도누공에 의한 발성과 식도발성군 중에서 Leipzig의 음성재활정도 분류상 1, 2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하여 의사소통과 언어사용의 효율성을 비교하고자 음성학적 parameter들을 이용하여 비교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 1) 기본주파수에서는 기관식도 발성군, 식도발성군, 정상인군의 순이었다.
 - 2) 어음 강도는 기관식도 발성군, 정상인군, 식도발성군의 순이었다.
 - 3) 최대발성지속시간, 호흡당 최대 숫자 반복개수, 호흡당 최대단모음 반복개수, 호흡당 단어 반복개수, 분당 단어 반복개수는 정상인군, 기관식도 발성군, 식도발성군의 순이었다.
- 결론적으로 Amatsu식 기관식도누공술에 의한 발성은 식도 발성에 비해 발성시 한손을 사용해 야하는 불편은 있으나 술후 언어의 습득이 빠르고 배우기 쉬우며 비교적 정상인과 가까운 발성이 가능하고 높은 강도의 음성을 낼 수 있고 발성명

료도가 높아, 후두전적출술후 음성재활요법으로서 추천할 만한 방법으로 사료되었다.

- 26 -

갑상선 전절제술 및 근전절제술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

연세의대 외과학교실

서광욱 · 박정수

Over a 10-year period(1981-1990), 111 consecutive total thyroidectomies and 81 near-total thyroidectomies were performed for variable thyroid disease. In total thyroidectomy group(Group I), 58 complications(52.3%) and in near-total group(Group II), 11 complications(13.6%) were observed. Transient hypoparathyroidism was a leading complication in both groups(47 of group I, 5 of group II). Permanent hypoparathyroidism was observed in 4 patients in group I and 2 in group II. In group I, there was only one recurrent laryngeal nerve injury and in group II, 3 recurrent nerve injuries were observed. In group I, 13 patients underwent thyroidectomy alone were complicated with only 2 transient hypoparathyroidism. But the wider the area of dissection, the more the complication was observed(central node dissection, CCND : 26/49, CND plus any type of functional neck dissection, CCND + FND : 15/38 and classical neck dissection, RND : 9/9). In group II, similar tendency was observed(thyroidectomy alone : 0/11, CCND : 5/42, FND : 5/25, RND : 0/3).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lication rates and stage of lesions revealed that 44 patients whose lesions limited in thyroid capsule showed only 5(11.4%) transient hypoparathyroidism but 67 whose lesions beyond the capsule showed 53(79.1%) complications in group I. In group II, 30 patients whose lesions limited in thyroid capsule showed only one(3.3%) recurrent nerve injury but 51 cap-

sular invasion group, 10(19.6%) complications were observed.

These data suggest that the morbidity of total or near-total thyroidectomy relates primarily to the stage of lesions and extents of node dissections rather than thyroidectomy itself. The low permanent complication rate also suggest the feasibility of total thyroidectomy with an expert's hands and in more serious conditions where postoperative complications are more apt to or in operations to be performed by other than experts, a near-total thyroidectomy can be substituted for total thyroidectomy.

- 27 -

두경부 암 환자에서 병발된 위암 2예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내과, 치료방사선과*,
이비인후과**

문찬수 · 강진형 · 김훈교
이경식 · 김동집 · 윤세철*
조승호** · 서병도**

두경부암은 흡연과 음주 인구의 증가로 인해 발생빈도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연령도 조기화하는 추세이다. 최근 치료방법의 발달로 생명 연장이 기대되고 있으나 재발 및 이차암(second primary tumor) 발생이 중요사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차암 발생은 다른 두경부 부위뿐 아니라 폐, 식도에 주로 발생하며 추적 검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위암의 발생율이 제1위이기 때문에 두경부암 환자에서도 위암 발생율이 높을것으로 기대되나 이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직 없다.

저자들은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에서 치료했던 두경부암 환자중 위암이 병발된 2명을 경험하였다.

증례 1 : 60세 남자환자가 좌측 두통과 청각 장애를 주소로 내원하여 1989년 10월 좌측 비인두부 조직 생검결과 Nasopharyngeal Cancer(squa-